

2023

연차보고서

The Impact



GREENPEACE

CONTENTS

인사말	→ 03
미션	→ 05
환경감시선	→ 07
글로벌 기후에너지	→ 10
기후참정권	→ 11
그린워싱	→ 13
탈원전	→ 15
친환경자동차	→ 17
생물다양성	→ 19
해양보호	→ 22
플라스틱	→ 25
시민참여	→ 28
캠페인 지원	→ 31
임팩트 스토리	→ 34
후원금 사용 내역 보고	→ 39

우리의 영향력은 함께일 때 더욱 커집니다

그린피스 후원자님께

지구를 위한 후원자님의 한결같은 지원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그린피스는 후원자님의 힘으로 다양한 변화를 만들고 더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린피스는 다음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강력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심찬 기후행동

기업들이 기후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캠페인을 펼칩니다.

생물다양성 보호

소중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연대 활동 강화

같은 목표를 가진 개인,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업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남부원

그린피스 동아시아 이사회 의장



썬이팽청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



© Tomás Murta / Green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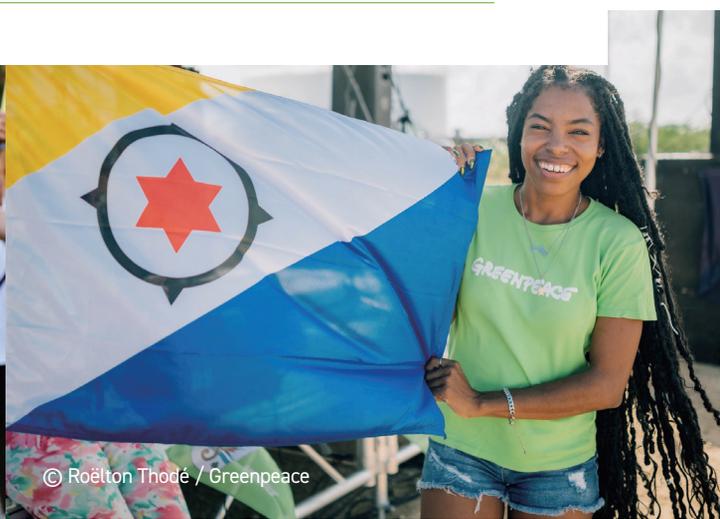


© Will Rose / Greenpeace

하나의 서명,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액션.
후원자님이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신
모든 행동이 모여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고 나아가는 동료입니다.



© Greenpeace / Yejin Kim



© Roëltin Thodé / Greenpeace



© Harriet Spark / Grumpy Turtle Film / Greenpeace



© Reddik Boubaker / iWatch



© Greenpeace



© Tim Aubry / Greenpeace

우리는 말하지 못하는 존재를 위해 활동합니다.

우리에겐 생명으로 가득 찬 숲과 바다가
필요합니다. 계곡물처럼 깨끗한 에너지가
흐르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으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린피스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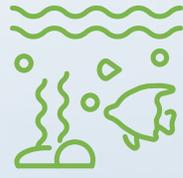
그린피스의 목표

1



화석 연료 사용 중단

2



2030년까지 공해 30% 보호

3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75% 이상 감축

4



2030년까지 농업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량 50% 감축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2023 하이라이트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환경 파괴의 현장을 폭로하고,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기도 합니다.

2024년,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이 한국에 옵니다!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이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될까요?
후원자 뉴스레터를 확인해 주세요!

RAINBOW WARRIOR

레인보우 워리어



레인보우 워리어 호는 후원자님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친환경적인 배입니다. 5월, 호주 알바니를 방문해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드사이드의 화석 연료 개발을 막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ARCTIC SUNRISE

아틱 선라이즈



2023년 8월, 심해 채굴로 위협받고 있는 고래와 돌고래에 대한 과학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WITNESS

위트니스



10월, 아르헨티나 바다에서 거대한 소음으로 해양 생물들을 위협하는 탄성과 석유 탐사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그린피스 활동



1 개인 제트기를 금지한 암스테르담 공항

그린피스의 활동과 시민들의 청원서로, 스키폴 공항은 2025년부터 개인 제트기의 활주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2 틱톡도 친환경으로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 IT기업 바이트댄스가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3 독일, 마지막 원전 문을 닫다

40년간 오랜 탈원전 캠페인 끝에, 독일이 운영 중인 3기의 원자로 가동을 모두 멈췄습니다.

4 우크라이나에 피어난 희망

그린피스는 폭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키이우 근방의 호렌카 병원 재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세대 간 기후 불평등 해결을 위한 첫걸음

불공정하게 분배된 탄소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그린피스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소예산이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지켜야 하는 탄소배출 한도



분산에너지활성화법 통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입법 현황을 조사하고,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는 활동을 펼친 결과 마침내 분산에너지활성화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분산에너지활성화법이란?

지역사회나 가정에서도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청년과 함께 만든 변화



국회 앞에서 탄소의 짐 퍼포먼스를 펼쳐 청년 세대에게 쏠린 탄소 감축 책임 문제를 정치권과 우리 사회에 알렸습니다.

결국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권은 그린피스의 요구대로 세대 간 기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여정

“친환경 제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그린피스는 497명의 시민들과 함께
소셜미디어 속 그린워싱을 찾아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조사한 그린워싱의 유형

자연이미지 남용
51.8%

녹색 혁신 과장
18.2%

책임 전가
40.0%

기타
14.0%



기후공시 헌법소원



© Greenpeace / Jung-geun Augustine Park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이 기후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린피스는 167명의 시민 청구인단과 함께 9월 20일,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그린피스와 시민들의 헌법소원은 각하 결정을 받았지만, 국회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안전한 내일을 위한, 원전 말고 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엔 국경이 없습니다.

▶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합니다.**

그린피스는 2011년부터 과학적 조사를 진행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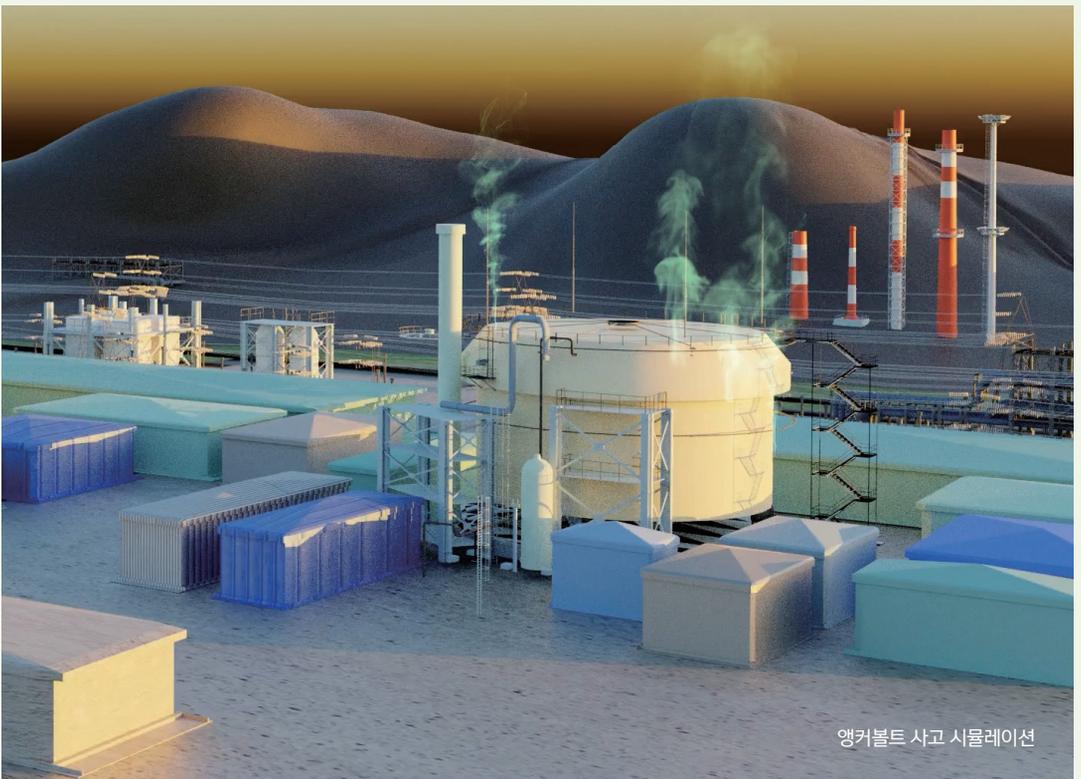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5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352,021명 시민들의 서명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전쟁의 불모가 된 원자력 발전소

그린피스는 원전 사고의 가능성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우크라이나를 횡단하며 방사선 현지 조사와 방사능 센서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원전 부실시공 최초 폭로



그린피스는 국내 원전 13기에 부적합한 부품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원전의 기기들을 안전하게 고정하는 장치인 앵커볼트가 내진 성능이 없거나 설계 도면과 다르게 장치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원자력 기관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하며 불충분한 원전 안전 대응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탄소 질주에 브레이크를!

그린피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자동차 회사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 공개

전 세계 15개 자동차 회사를 대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공급망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는지, 자원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2023 글로벌 15대 자동차 회사 친환경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차는 중하위권인 9위(20.5점)에 머물렀습니다.



현대차에 기후위기 대응 요구

11월,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퍼포먼스를 펼쳐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SUV는 일반 자동차보다 주행 시 1대당 4.6톤의 이산화탄소를 더 발생시킵니다. 현대차의 2022년 SUV 판매 비율은 약 53%로, 세계 상위 5개 제조사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건강하고 풍부한 생태계를 지켜요

다양한 생명이 뛰노는 지구를 위해, 그린피스는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2022년,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엔 산하 196개 회원국 대표들
이 모여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하는 생물다양성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린피스는 각국 정부가 생물다양성 협약을 충
실히 이행하도록 캠페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꿀벌을 지켜라!

우리나라에서만 사라진 꿀벌은 2022년에 78억 마리, 2023년에는 무려 141억 마리입니다.

그린피스는 양봉협회와 함께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꿀벌 70%가 수분을 의존하고 있는 아까시나무의 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전국 98개 초중고교에 꽃밭을 조성하는 ‘허니비 스쿨 프로젝트’로 도심 곳곳에 꿀벌의 급식소를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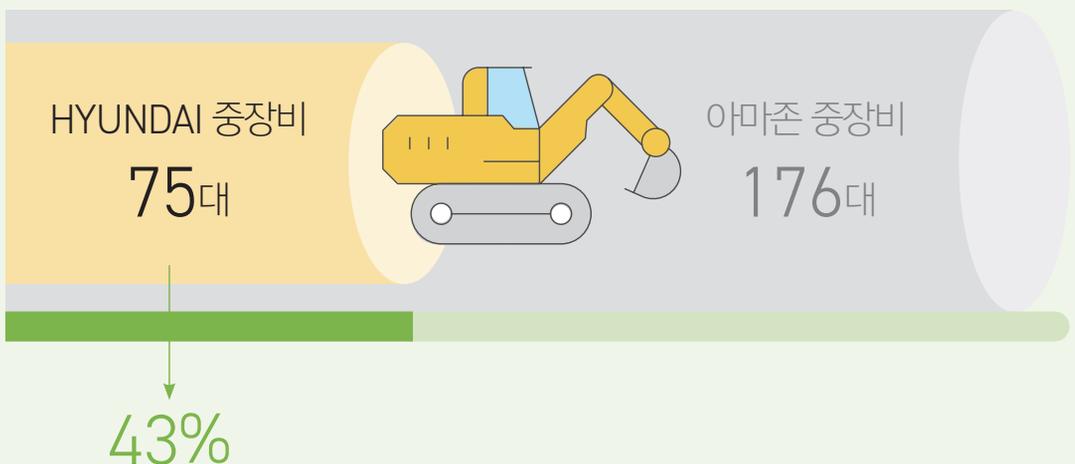
아마존을 위한 승리



아마존 원주민 부족의 아이 570명이 불법 금 채굴로 수은에 노출되거나 말라리아, 설사, 기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린피스는 불법 채굴 현장을 조사했고, 중장비 중 상당수가 HD현대건설기계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아마존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는 불법 채굴 현장의 중장비 사용 현황과 문제점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HD현대건설기계는 아마존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아마존 파괴에 동원되는 중장비 판매 중단에 나섰습니다.

아마존 채굴 현장 중장비 중 HYUNDAI 중장비 점유율



건강하고 풍부한 생태계를 지켜요

글로벌 해양조약 합의와 함께 희망찬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수십 년 간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내온 그린피스와 후원자님들이 함께 커다란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글로벌 해양조약 합의

수십 년간의 협상 끝에, 2023년 3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글로벌 해양조약이 합의되었습니다.

정부를 바꾸는 시민의 힘



회의 초기, 원양어업 강국 중 하나였던 한국 정부는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의 오랜 캠페인으로 한국 정부는 글로벌 해양조약에 서명한 83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해양보호 영상 상영회



2023년 2월 15일, 유엔 생물다양성 보전협약 정부 간 비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영상 상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박태환 전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나레이션을 맡았습니다.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보고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300여 명의 후원자님들이 영문 보고서의 국문본 발간을 위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위기, 근본적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과 리필 기반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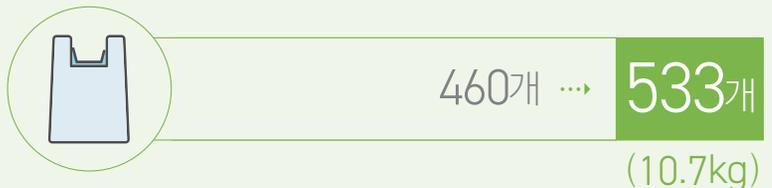
그린피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을 최소 75% 절감하고, 재사용과 리필 기반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가 총 5회 개최되는데요. 그린피스는 협상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실태 조사

그린피스는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 연구팀과 함께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추이와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 향후 발생량 예측과 국제 사회의 동향 등을 분석 조사했습니다.

2020년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

□ 2017년
■ 2020년



19kg 소비
1인당 / 2020년



일회용 컵 vs 다회용 컵



홍콩과기대, 홍콩시립대 과학 연구팀과 협력해 한국, 대만, 일본, 홍콩 등 동아시아 지역 4개 국가의 재사용 컵 대여 및 반환 시스템을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컵 대여 및 반환 시스템이 일회용 컵보다 환경친화적임이 밝혀졌습니다.

4번째 플록조사, 최고의 쓰레기 왕은?

2천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는지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는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롯데칠성을 비롯해,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음료 기업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 년 열두 달, 시민참여 캠페인

그린피스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과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시민참여 캠페인 팀은 2023년도 시민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2~8월

기후행동교사모임

2022년 조직한 ‘기후행동교사모임’의 선생님들과 좌담회 및 여름방학 워크숍을 개최해 환경, 기후 교육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8월

그린워싱 감시단

소셜 미디어 속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찾아내기 위해, 300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4개월 동안 그린워싱 감시단 활동을 진행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7월

플라스틱조사와 워크숍

2,084명의 시민들과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하는 플라스틱조사를 진행하고, 조사후 700여 명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플라스틱 생산단계부터 필요한 변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9~12월

기후공시 헌법소원 제기 및 개정안 발의

그린워싱 감시단과 함께 기업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기후공시 의무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12월

자원봉사자 연말 파티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과 한해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파티를 진행했습니다. 방송인 자히드 후세인 님이 깜짝 손님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청년 기후정책 해커톤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생계 주거, 일자리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해커톤을 진행하고, 여기서 모인 아이디어를 정책 제안서에 담아 정당에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그린피스는 논산 수해복구 자원봉사, 기후정의 행진 부스 이벤트, 정기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미디어와 온라인 캠페인 활동

그린피스는 2023년, 폭넓은 미디어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그린피스의 캠페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주요 언론에 소개된 그린피스 캠페인과 환경 이슈

- ▶ **탄소의 짐을 짚어진 청년 세대**
환경의 날, 국회 앞에서 탄소의 짐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 ▶ **아마존 불법 금 채굴 기자회견**
HD현대건설기계 중장비 아마존 파괴 동원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다수의 언론 매체가 참석했으며, 가디언지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언론에서 집중 보도했습니다.
- ▶ **플라스틱 몬스터 액션**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는 거대 플라스틱 괴물 조형물을 신촌에 설치해 국내는 물론 유럽 및 중동 등 주요 해외 매체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대중과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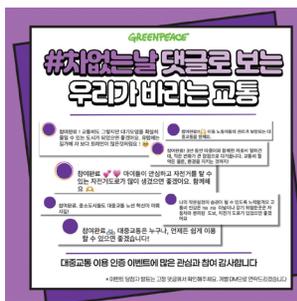
▶ ‘오작교’, 오늘의 작은 교통

9월 22일 ‘차 없는 날’을 맞아 한 달간 소셜미디어 이벤트 ‘오작교 챌린지’를 진행하고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온오프라인 연계 활동

온라인으로 진행한 그린워싱 조사단 활동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명한 기후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세대 간 기후 불평등을 알리고 오프라인에서 시민들과 청년 단체, 정치인이 직접 소통하는 ‘기후토크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300여 명의 시민들이 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다.



인플루언서와 함께 만든 변화

▶ 배우 윤여정과 함께하는 꿀벌식당

벌을 구하기 위해 밀원식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배우 윤여정 님과 '꿀벌식당'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 ‘다시 쓰는 리듬 (We Use Reuse!)’ 뮤직비디오

케이팝 밴드 데이식스(DAY6) 멤버 도운과 퍼커셔니스트 정솔과 함께 다회용기 사용을 즐겁게 홍보하는 ‘다시 쓰는 리듬’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 전 세계 14명의 셀럽, “플라스틱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3번째 협상 회의를 앞두고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을 비롯해 국내외 셀러브리티 14명이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비디오에 참여했습니다.





© Greenpeace / Yeo-sun Park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민의 힘(People Power)’는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움직이는 근본입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은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서 힘을 얻고, 개인 후원자님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Greenpeace / Yeo-sun Park

그린피스 후원자님, 반갑습니다

2023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후원자님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건 쿠키 클래스

2023년 6월, 그린피스는 좀 더 쉽게 채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후원자님들을 위한 비건 쿠키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행사에서는 비건 야키소바와 비건 떡볶이를 만드는 법을 배워보고, 함께 둘러앉아 먹으며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대한 캠페이너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차보고서 발간 기념 행사

서울 사무소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그린피스 캠페인 활동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웨비나에서는 그린피스가 주력하고 있는 캠페인 활동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후원자님께 그린피스의 캠페인 방식을 실제 캠페인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기후행진을 위한 핸드 배너를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대하게 느껴지기만 했던 캠페인 이야기가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직접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잘 와닿았어요. 언론과 관련한 캠페인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환경’ 이야기는 ‘일상’의 이야기

- EBS 다큐멘터리 PD 최평순 후원자님

13년간 EBS PD로 <하나뿐인 지구>, <이것이 야생이다>, 다큐프라임 <긴팔인간>, <인류세>, <여섯 번째 대멸종> 등 다양한 환경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최평순 PD. 그린피스와 함께 아마존과 남대서양을 방문해 현장을 기록한 최평순 PD는 그린피스의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한 사명감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입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나의 일’이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탄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존 현장을 방문하다

아마존을 방문했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이틀 밖에 없는데 화재 현장을 담을 수 있을까?’였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이틀 모두 불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파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실감했어요.

그린피스 캠페이너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운송, 위성 전문가, 원주민 커뮤니케이션 담당, 언론 담당 등 역할 분배가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느꼈어요. 항공기를 보유한 것도 놀라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 감시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린피스와 6년 동안 일하면서 남태평양부터 아마존까지, 현장에서 정말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항상 인간이 지구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백방으로 알려려고 노력하는 걸 보며 감동하곤 해요.

후원자님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그린피스는 다음 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겸손한 일꾼들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자님의 신뢰와 헌신이 저희가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크리스티나 산 비센테
동아시아 지부 부사무총장



3만 원의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45.3%(13,587원)



해양 보호
7.6%(2,281원)



산림 보호
7.8%(2,344원)



독성물질 제거 / 건강한 삶
3.6%(1,076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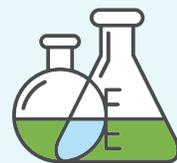
교차 캠페인
12.2%(3,649원)



캠페인 미디어 및 대중 홍보
11.7%(3,519원)



비폭력 직접행동, 자원봉사
4.4%(1,33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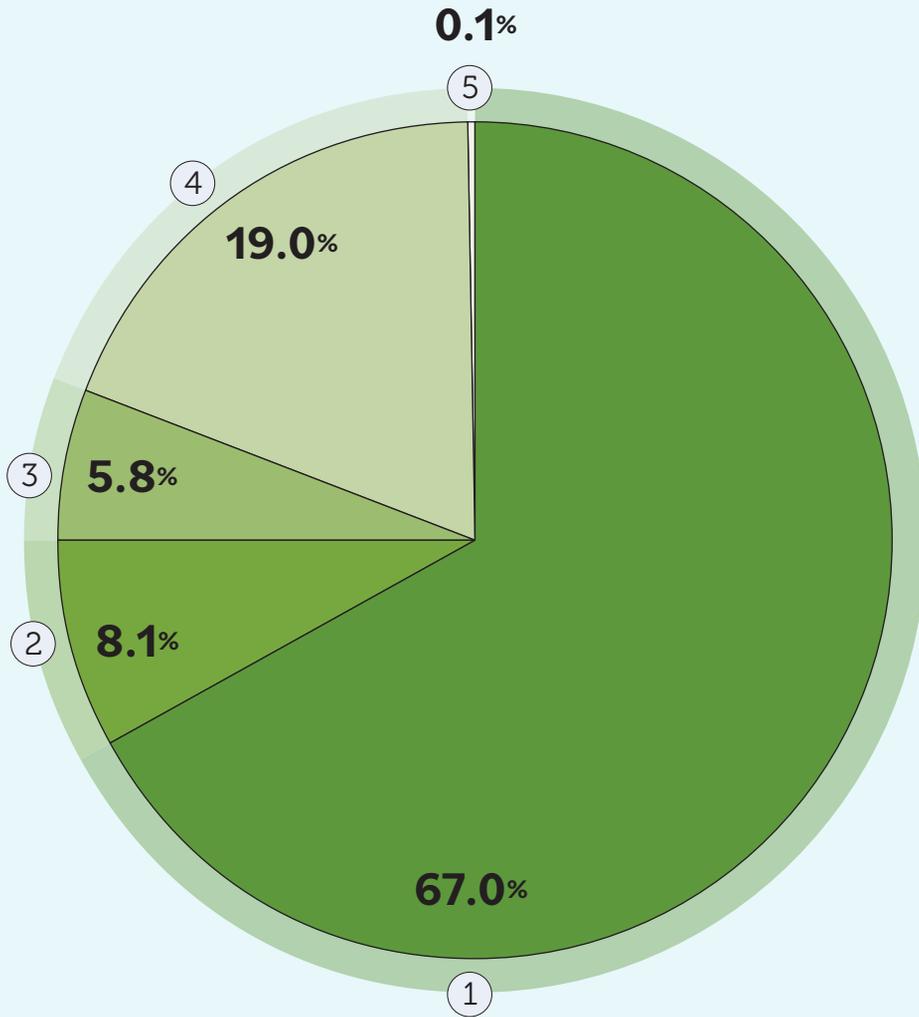


친환경 정책,
비즈니스 및 과학 연구
7.4%(2,212원)

2023 동아시아지부 수입 내역

총 수입
(단위: 원)

57,284,905,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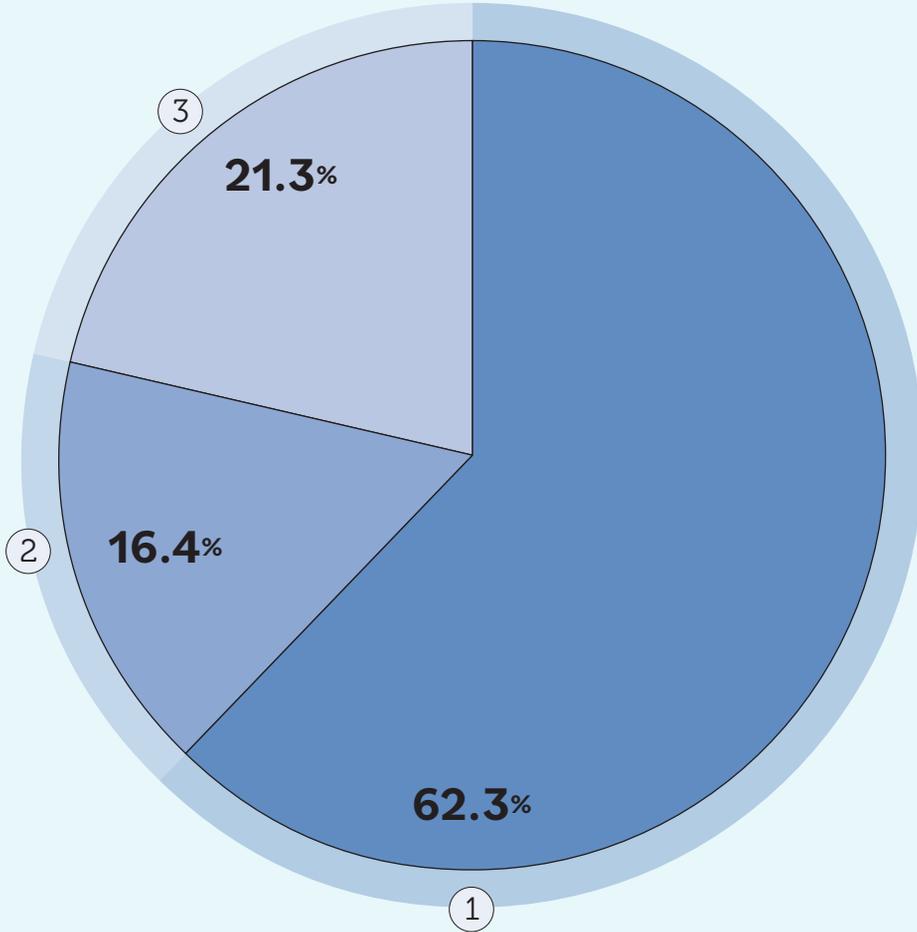


1	기존 후원자 후원금	38,387,590,604
2	신규 후원자 후원금	4,639,234,463
3	재단 및 신탁, 고액 후원자 후원금	3,316,665,758
4	그린피스 국제본부 보조금	10,891,654,280
5	이자 및 기타	49,760,277

2023 동아시아지부 지출 내역

총 지출
(단위: 원)

56,238,924,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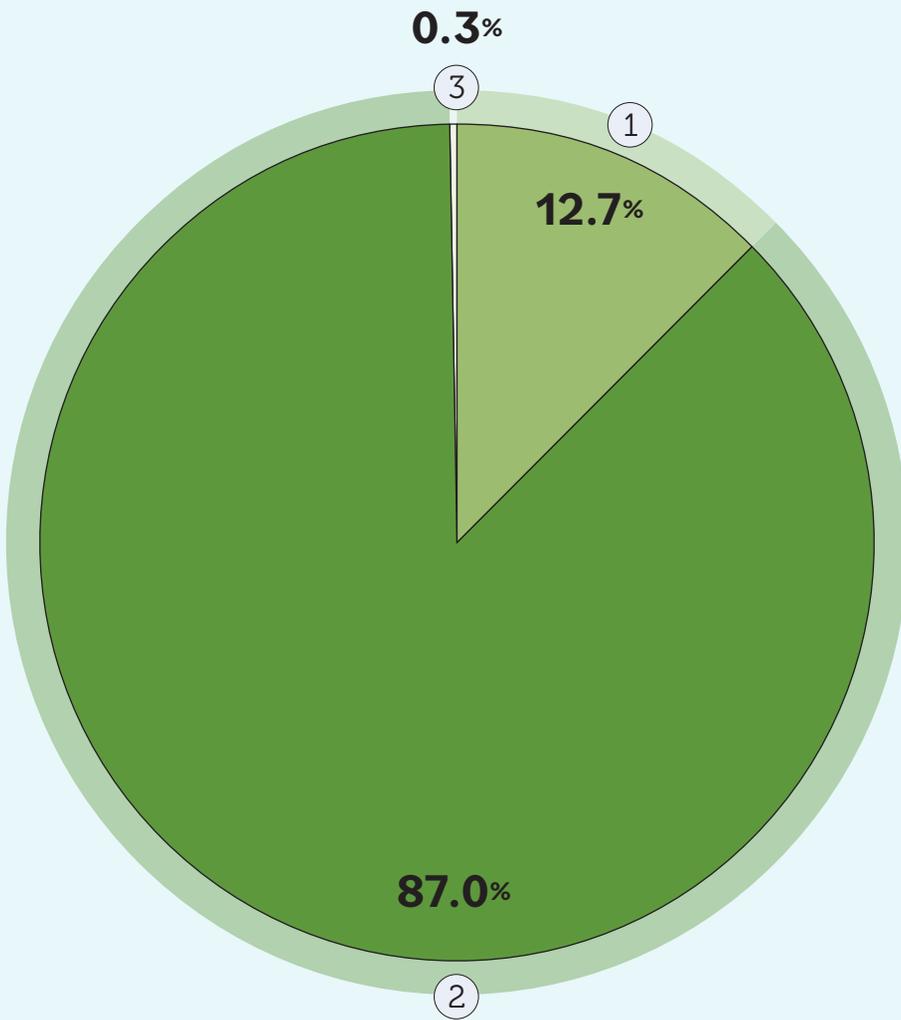


1	캠페인 및 캠페인 지원 (기후에너지 해양 보호 산림 보호 플라스틱, 독성물질 제거/건강한 삶 기타 교차 캠페인 캠페인 언론 홍보 환경 정보 홍보 및 시민 교육 비폭력 직접행동 및 시민참여 프로젝트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35,039,554,997
2	조직 지원 (매니저 관리 및 경영 법률 자문 인사 관리 행정 업무 재무 관리 IT 지원)	9,237,183,878
3	모금 및 후원자 관리	11,962,185,447

2023 서울 사무소 수입 내역

총 수입
(단위: 원)

16,496,795,894



1

신규 후원자 후원금

2,097,567,096

2

기존 후원자 후원금

14,357,584,06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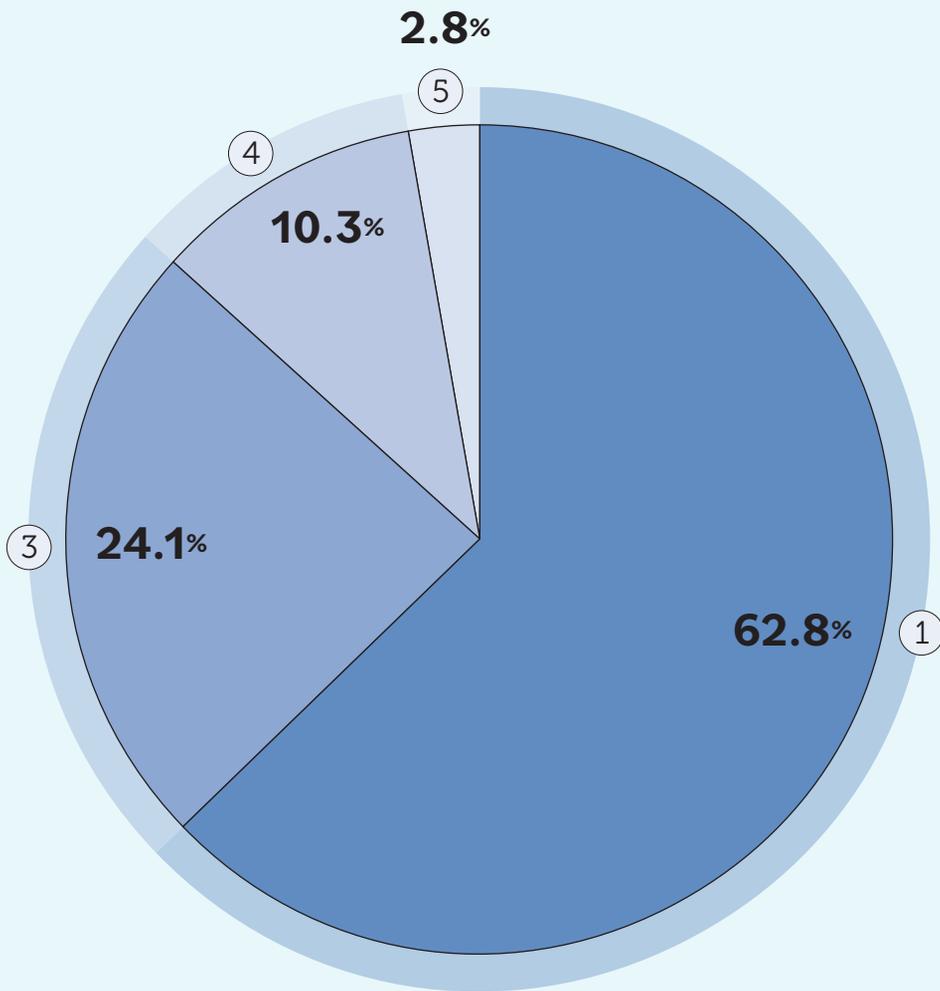
이자 및 기타

41,644,733

2023 서울 사무소 지출 내역

총 지출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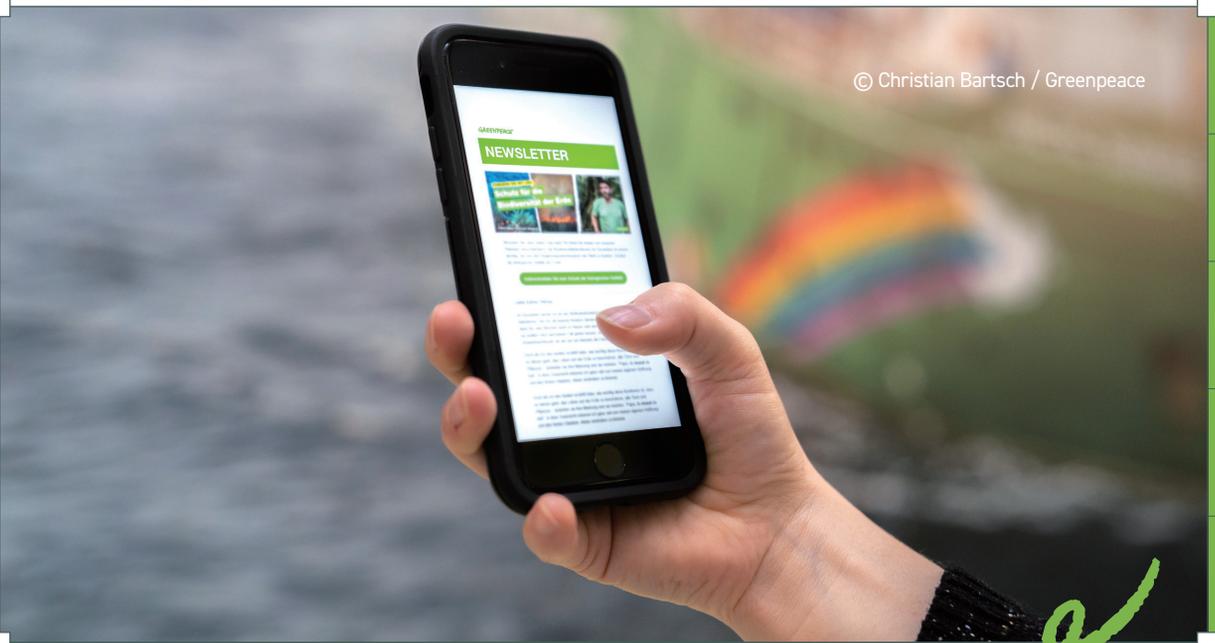
16,475,940,457



<p>1</p>	<p>캠페인 및 캠페인 지원 (기후에너지 해양 보호 및 극지방 플라스틱, 독성물질 제거 국제 그린피스 캠페인 지원 기타 교차 캠페인 캠페인 코디네이션 캠페인 언론 홍보 환경 정보 홍보 및 시민 교육 비폭력 직접행동 및 자원봉사 관리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서포터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p>	<p>10,351,618,563</p>
<p>2</p>	<p>모금 및 후원자 관리</p>	<p>3,963,544,626</p>
<p>3</p>	<p>조직관리(재무관리 IT지원 인사관리 법률 자문 직원 개발 등)</p>	<p>1,704,106,681</p>
<p>4</p>	<p>기타(이자비용 및 환차손 등)</p>	<p>456,670,587</p>

그린피스 콘텐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후원자님께 그린피스의 소식을 더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Christian Bartsch / Greenpeace

그린피스는 후원자님께 새로운 캠페인 소식과
활동 성과는 물론, 최신 환경 이슈나 이벤트 등 다양한
환경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그린피스의 콘텐츠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들려주세요.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께는
추첨을 통해 10분께 특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설문조사 참여 기간: 2024년 9월 30일(월) 까지



지금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